

‘교과서 속 문학의 정원을 걷다’ 기획展

군산시 채만식문학관, 1940~70년대 문교부서 발행 교과서 기증 자료·문학작품 등 전시

군산시 채만식문학관은 학창 시절에 교과서를 통해 읽어본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작품을 재조명하는 ‘교과서 속 문학의 정원을 걷다’ 기획 전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의 주제는 ‘교과서 문학’으로 교과서에서 수록된 검증된 지식과 이상적 예술작품으로 학생들이 읽을 만한 모범이 되는 문학작품과 문학인을 소개한다.

전시는 총 5부로 구성돼 있다. 1부 <교과서 속 문학작품>은 교과서 문학의 의미를 소개, 2부 <문학을 배우는 단계>는 문학을 이해하는 과정, 3부 <문학의 씨앗, 고전문학>은 훈민정음으로 우리의 정서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국문소설, 4부 <근대문학, 문학의 꽃을 피우다>는 자주독립에 대한 의식과 우리 말과 글에 대한 민족적 정서를 담은 소설문학과 자유시, 5부 <현대문학, 문학의 정원을 가꾸다> 광복 직후의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인간과 환경 등 시대를 대변하는 문학작품으로 구성됐다.

주요 전시물은 1940~70년대 문교부에서 발행한 교과서 기증 자료와 전북 무형문화재 해설 월산 최란수 명창이 기증한 판소리 창본과 녹음 테이프, 국문소설 등을 전시하고, 교과서에 수록된 김유정, 이상, 김소월,



군산시 채만식문학관은 학창 시절에 교과서를 통해 읽어본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작품을 재조명하는 ‘교과서 속 문학의 정원을 걷다’ 기획 전시를 개최한다.

백석, 윤동주 등의 대표 작품을 소개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서로 다른 학창시절을 보냈을 세대가 모여 어릴 적 문학소년, 소녀를 꿈꾸었던 낭만 가득했던 그 시절 감성을 다시금 느껴보며,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채만식문학관은 시민과 지역 문학인들의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군산의 문학사적 기능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각종 전시 및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강좌 등을 통한 열린 문학 교육장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대 김준 교수, 피아노 독주회

9월 2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주홀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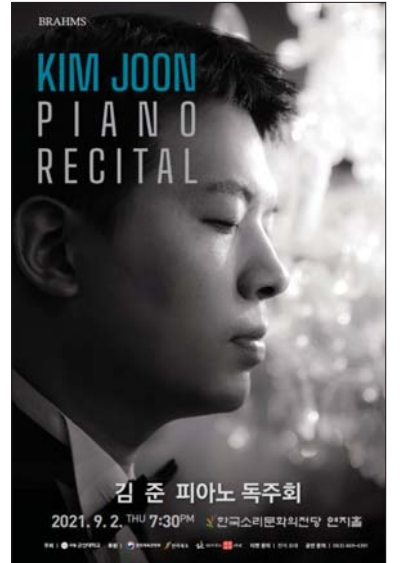
군산대학교 음악과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는 김준 피아노 독주회가 9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전주에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주홀에서 열린다.

피아니스트 김준은 특별히 이번 독주회를 위해 브람스의 작품들로만 구성을 하였으며, 브람스의 첫 작품인 피아노 소나타 1번을 비롯하여 후기 낭만음악의 정수를 선보이는 4개의 피아노 소품 OP.119와 테크닉에 대한 열정을 가득 실은 파가니니 변주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피아니스트 김준은 이번 무대를 준비하며 “지치고 힘든 팬데믹 상황에서 음악으로 하나가 되고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무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공연문의는 전화(063-469-4391)로 가능하고 전시 초대로 진행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 ‘하반기 이달의 우수게임’ 모집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1 하반기 이달의 우수게임’을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달의 우수게임’은 국내 우수게임을 발굴 및 시상해 게임 창작을 활성화하고 게임기업들의 제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진행된다.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됐으며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과 함께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일반게임, 기능성게임, 인디게임 3개 부문에서 기획·개발·운영의 우수성, 게임 디자인, 콘텐츠 경쟁력, 사업수행 역량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평가와 게임 유저투표를 진행, 총 8편의 작품을 선정한다.

국내 게임제작사, 게임배급사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일반게임 부문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출시 12개월 이내의 국내 창작·개발 게임을 대상으로 하고 재능모가 불가하다. 기능성게임, 인디게임 부문은 플랫폼 및 출시일, 재능모 여부와 관계없이 응모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

여받으며 ‘2021년 대한민국 게임대상’ 후보로도 자동 등록된다. 이밖에도 이달의 우수게임 홈페이지, 게임 전문매체와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홍보 기회 제공, 게임 분야 산업기능요원 신장시 수상경력 항목 배점 부여 등 수상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 열린 전체 시상식에서는 올해 수상작 총 16편의 작품에 대한 시상과 함께 토크 콘서트 및 세미나, 비즈니스 네트워킹 파티 등을 진행해 게임업계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상반기 이달의 우수게임’ 수상작으로는 일반게임 부문 ▲넷마블넥서스(주) ‘세븐나이트’ ▲(주)위메이드 ‘미르’ ▲(주)엔픽셀 ‘그랑사가’ ▲데브시스터즈 ‘쿠기런: 킹덤’, 기능성게임 부문 ▲스튜디오806 ‘알바생 시뮬레이터!’ ▲(주)웹블로 ‘라온 모바일’, 인디게임 부문 ▲퍼니이브 ‘동물 인형상’ ▲퍼터메이더 ‘냥냥 고양이 리프트’ 등 총 8편의 작품이 선정됐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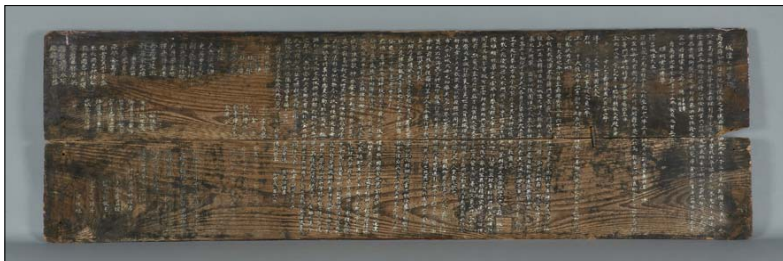
순창군, 성황대신사적현판 번역·고증 용역 최종 보고회

관련 학계 전문가·군 문화자원 활용 추진위원 참석해 진행

순창군은 지난 25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성황대신사적현판 번역 및 고증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순창군이 주최하고,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보고회는 전남대학교 이형성 교수, 중앙대학교 송화섭 교수 등 역사학, 민속학 관련 학계 전문가 9명과 향후 단오성황제 등 문화유산 복원 재현을 위해 구성된 ‘순창군 문화자원 활용 추진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이남섭 순창부군수는 환영인사를 통해 “국가 민속문화재 제238호 순창성황대신사적현판은 고려시대 이래 약 700년간 거행되었던 순창 단오성황제의 모습을 기록으로 증명하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며, “특히 순창 단오성황제는 풍년을 기원하고, 지역민의 단합을 위한 순창군의 축제였다”고 소개하면서 “보고회를 통해 순창 단오성황제의 복원과 재현을 위한 학술적 토대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황대신사적현판.

이번 용역의 연구책임자로서 번역내용에 대한 설명과 발표를 맡은 이형성 교수는 “성황대신사적현판은 고려 말기부터 순창을 내에서 거행된 단오성황제와 성황신앙의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료일 뿐만 아니라, 규모면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성황제 관련 기록 현판으로서 한자와 이두로 1,676개의 글자가 음각되어 그 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인정받게 될 것”이라 보고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 응답과 토론을 통해 송화섭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순창군 문화자원 활용 추진위원들은 번역과 각주 부분에서 수정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자문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군은 현판 번역 고증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단오성황제 복원 재현행사 추진에 필요한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연행예술보고서 제작용역을 진행하고, 현판의 국가 보물 승격신청 준비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오는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제4회 전주국제단편영화제 자원활동가 모집

전주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리는 제4회 전주국제단편영화제와 함께 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원활동가는 영화제 기간 영화제 홍보, 영상영, 프로그램 운영, 이벤트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모집 분야는 기획팀·프로그램팀·홍보팀·기술팀·운영팀 등 모두 5개 팀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전주국제단편영화제에 관심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오는 9월 3일까지 전주국제단편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후 서류와 비대면 면접 심사 과정을 거쳐 내달 1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자원활동가에게는 배지 및 활동인증서 발급 등 지급된다. 또 1365 자원봉사포털 사이트에서 자원봉사 시간을 등록해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뉴시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